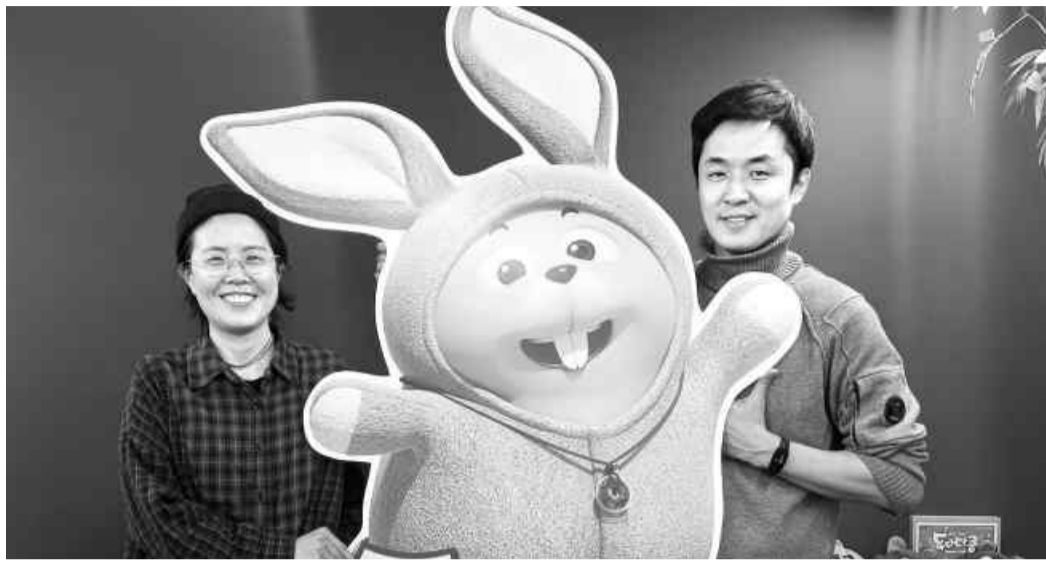


“광주産 애니 ‘두다다쿵’ 극장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대표작
EBS 첫 방영 후 10년만에 영화화
84분 제작에 200명 투입 3년 소요
무등산 서석대 등 배경... 15일 개봉



3D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극장판 개봉을 앞둔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의 김지운(왼쪽)·최병선 감독.



극장판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 한 장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3D 애니메이션 '두다다쿵'을 만든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주) 최병선(50)·김지운(46) 감독(공동 대표)은 지난 2016년 무등산을 오르며 호기심 많은 두더지 '두다'와 꼬마 탐험가 '다다' 친구들을 실은 '핑카'가 주상절리 곳곳을 누비는 상상을 했다.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제작진 8명은 입석대와 서석대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 이날 8시간 동안 드론으로 무등산을 수직 촬영했다.

광주 애니메이션 기업 아이스크림 스튜디오는 대표작 '두다다쿵'을 지난 2013년 EBS에 처음 방영한 이후 시즌3까지 이어가며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극장판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한 편에 11분 남짓한 단편 3D 애니메이션이 84분짜리 극장판으로 태어나는 데는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첫 극장판 개봉을 앞둔 최병선, 김지운 감독을 지난 10일 전일빌딩245에 입주한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전날 서울 용산CGV에서 600여 관객을 대상으로 신고식을 치른 이들은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은 엄마의 기억을 찾아 후후섬으로 여행을 떠난 두다와 친구들의 좌충우돌 여정을 다룬다.

김 감독은 작품에 몰입하는 관객의 모습을 보며 흥행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어린이 가족 관객이 1시간 20분 넘는 동안 한자리에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사건 구성과 갈등 요소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정과 사랑 등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엄마를 찾아 떠나는 두다와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저도 각본을 쓰고 그림 그릴 때 눈물이 났는데, 아이와 함께 온 어른들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작품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소재는 '모험'

이다. 이 작품은 기존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적용하는 TV 화면비율(16 대 9) 대신 정통 와이드 스크린을 택했다. 7가지 캐릭터를 실은 '핑카'가 광활한 무등산과 '후후섬'을 날아다니는 모습과 민화 속 거대한 '용'의 비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영상미에 신경을 썼습니다. TV 애니메이션에 썼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가져다 쓰지 않고 극장판을 위해 아예 새로운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200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1컷 제작에 10개월이 걸릴 정도로 지난한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유료 관객 수익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도전한 두 감독의 의지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0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 광주에 둥지를 튼 아이스크림 스튜디오는

시청자층을 확장하며 광주가 '애니 만들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될 생각이다.

"300만 관객을 앞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애니메이션 산업계에 주는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2011년 220만 관객을 동원한 '마당을 나온 암탉'의 기록을 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직접 극장을 찾아 표를 사서 보는 관객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두다다쿵은 EBS 본방 시청률 유아동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보로로'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고, 프랑스·일본·중국·러시아·남미 등 전세계 40개국 140개 채널에서 방영하며 대표 'K-애니메이션' 명성을 쌓고 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태호 PD 새 예능 '지구마블...' 다음달 방송

김태호 PD가 새 예능 '지구마블 세계여행'으로 복귀한다. ENA는 김 PD의 신작 '지구마블 세계여행'을 내달 4일 처음 방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김 PD가 직접 설계한 부투마블 게임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여행 유튜브 빠니보틀, 팍튜브, 원지가 출연한다.

13년간 인기 예능 '무한도전'을 만들어온 김 PD는 2019년 '놀면 뭐하니?'로 성공적인 복귀를 했다. MBC에 적을 두고 넷플릭스와 협업한 예능 '먹보와 털보'로 OTT에 처음 진출했고, 이후 21년간 몸담은 MBC를 퇴사해 개인 제작사를 설립하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서울체코인'을 선보였다.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김 PD의 첫 유튜브 콘텐츠이기도 하다. 오는 23일 제작사 테오 공식 유튜브



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내달 4일 오후 7시 50분 ENA에서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 유연석

“사랑에 번민 많은 직장男 감정 표현에 집중했어요”

배우 유연석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요동치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 종영을 기념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유연석은 "로맨스 드라마에 나올법한 멋진 '남자 주인공'의 느낌을 털어내고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연석이 연기한 하상수는 명문대를 졸업해 은행원이 된 '반듯한 남자'다. 아부하는 법도, 변명하는 법도 없이 자신의 몫의 일을 남치게 잘 해낸다.

능력뿐만 아니라 섬세한 센스도 갖췄다. 식당에서 상대의 물잔이 비면 모르는 사이에 채워놓고, 상대가 먹는 반찬을 유심히 살펴 다른 반찬만 골라 먹는 다정한 남자다.

'이상형'에 가까워 보이는 하상수는 사랑 앞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우유부단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유연석은 "시청자들이 각자 입장에 대입해서 보니 하상수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봐주는 것 같다"며 "반응이 신기해서 드라마 방송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하상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찌질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저는 하상수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최대한 그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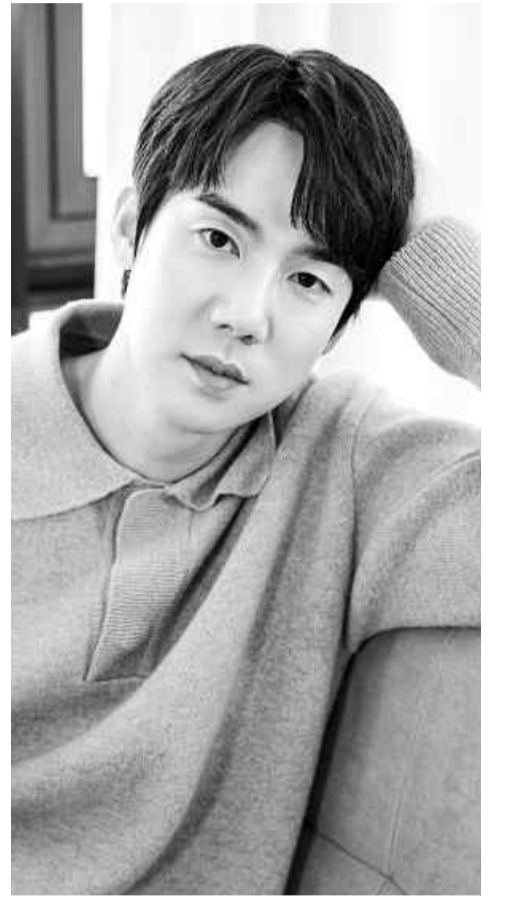
하상수는 힘드수록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꼭 자기 같아서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직장 동료 안수영에게 호감을 느낀다.

진중환 탓에 좋아하는 마음을 품은 안수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확신이 필요했던 안수영은 망설이는 하상수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서 둘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한다.

유연석은 하상수가 망설임 이유로 서로 다른 둘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대졸자 공채'로 은행에 입사한 하상수와 달리 안수영은 '고졸 출신 서비스 직군'이다.

드라마는 대학 졸업장으로 직군이 나뉘고, 처우가 달라지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며 연애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계급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현실적으로 녹여냈다.

유연석은 "하상수는 늘 슬관처럼 결말을 먼저 생각해본다고 말하는데, 안수영과 첫 데이트를 앞둔 순간에도 진지한 관계가 되었을 때 벌어질 결말을 생각하며 멈춰섰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돈을 다루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람을 수치로 평가하는 은행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사랑하는 감정 외에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더 부각돼서 잘 표현된 것 같다"고 했다.

데뷔 21년 차 배우 유연석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을 오가며 다양한 배역을 맡아왔지만, 특히 사랑 때문에 마음 앓이 하는 순애보 연기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2013)에서 풋풋하고 다정한 야구선수 칠봉이를, '미스터 션샤인' (2018)에선 백철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준 여인을 연모하는 구동매로 열연했다.

'사랑의 이해'에서도 유연석은 마음이 마음처럼 안돼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애절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단순히 알콩달콩한 연기보다 사랑의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표현하는 연기가 더 재미있어서 일부러 그런 역할을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의 이해' 시청자들이 제 연기가 많이 공감하고, 좋은 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멜로 장르에서 보여드린 유연석의 모습을 신뢰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작품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동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